Institute of Future Distance Education
미래 고등평생교육과 원격교육의 패러다임을 창조하는
미래원격교육연구원

IFDE

원격고등평생교육 국내정책동향

정책동향

2025년 서울형 라이즈(RISE) 사업 선정 결과

대학동향

사이버대학의 외국인 학생 대상 교육 운영

정책과제

방송대 외국인 학생 교육참여 현황과 대응 방안

2025
3호

2025년 서울형 라이즈(RISE) 사업 선정 결과

★ 라이즈(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는 정부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집행권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지역 특성과 발전 전략에 맞춰 대학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2025년 5월 서울 라이즈(RISE) 사업을 수행할 35개 대학을 최종 선정하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호에는 **2025년 서울 라이즈(RISE) 사업의 주요 선정 결과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대학이 향후 지자체 기반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참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탐색**하고자 합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교육부와 서울시 경제산업 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대학지원으로 서울시와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여 대학과 함께 서울의 미래 혁신 성장**
- **(사업기간) 총 5년 [기본 3년**('25.5~'28.2) **+ 연장 2년**('28.3~'30.2)**]**
- **(사업예산) '25년 총 765억원(국비 565억원, 시비 200억원)**

[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추진 개요]

비전: 대학과 함께하는 「글로벌 미래혁신 성장도시 서울」

프로젝트	세부 사업	성과목표
❶ 글로벌 대학 경쟁력 강화	❶ 글로벌 산학협력 선도 Signature ❷ 첨단·미래산업 외국인 인재 유치 Signature ❸ 미래인재 글로벌 역량 강화	글로벌 산학협력 선도 10개 대학 육성 • 본 글로벌 창업기업 40개 • 해외 인재유치 500명 • 글로벌 역량 강화 500명
❷ 서울전략 산업기반 강화	❹ 산학협력 생태계 활성화 ❺ AI·BIO 클러스터 혁신생태계 확산 ❻ 창조산업 인재 양성	산학협력 생태계 활성화 22개 대학 육성 • 산학협력 인재 1,300명 • 창조산업 인재 500명
❸ 지역사회 동반성장	❼ 지역 현안 문제 해결 ❽ 서울-지방 공유·협력 활성화 ❾ 서울 미래키움 교육지원 생태계 구축	지역 현안 문제 해결 100건 • 서울-지방연계 인재 400명 • 늘봄 프로그램 개발 5007H
❹ 평생·직업교육 강화	❿ 서울 평생교육 고도화 ⓫ 고숙련 전문기술인력양성	직업·평생교육 등 시민 15,000명 참여 • 고숙련 전문인력 800명
❺ 대학창업 육성	⓬ 서울캠퍼스타운	대학창업 연 1,000팀 육성

2 사업 선정 결과

- **54개 신청대학 중 35개 대학 선정(신청대학의 65% 선정)**
  - **일반대학 26개교 477억원**(공모액 565억원의 84.5%), **전문대학 9개교 87억원**(공모액 565억원의 15.5%)
  - 50억원 이상 선정대학 1개, 40~49억원 선정대학 1개, 30~39억원 선정대학 4개, 20~29억원 선정대학 6개, 10~19억원 선정대학 8개, 10억원 미만 선정대학 15개

1 글로벌 대학 경쟁력 강화

- **(글로벌 산학협력 선도)**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5개 대학, 대학별 최대 14억원)
- **(첨단·미래산업 외국인 인재 유치)**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5개 대학, 대학별 최대 10억원)
- **(미래인재 글로벌 역량 강화)**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4개 대학, 대학별 최대 7억원)

<선정 대학의 주요 강점>

- 서울대: 현황 분석의 구체성, 대학-지역 연계 목표, 글로벌 산학협력 역량
- 고려대: 해외 인재 정착 서비스 체계 구축, AI학과-기업 협력을 통한 첨단분야 외국인 인재 유치 전략
- 성균관대: 금융산업 ABB(AI, Big Data, Blockchain) 적용 기반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 전략

2 서울 전략산업 기반 강화

- **(산학협력 생태계 강화)** 건국대, 경희대, 국민대, 동국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중앙대, 한양대(11개 대학, 대학별 최대 15억원)
- **(AI·BIO 클러스터 혁신 생태계 확산)** 성균관대, 연세대(2개 컨소시엄, 컨소시엄별 최대 26억원)
- **(창조산업 인재양성)** 국민대, 동국대, 성균관대, 세종대, 중앙대(5개 대학, 대학별 최대 4억원)

<선정 대학의 주요 강점>

- 한양대: 풍부한 산학협력 경험과 고도화 모델 제시
- 국민대: 지역 전략산업 연계 특화 분야 설정 및 참여기관 역할 명확화
- 연세대 컨소시엄: 바이오 특화 분야 선정 및 양자컴퓨터 활용 신약 설계 계획

3 지역사회 동반성장

- **(지역 현안문제 해결)** 건국대, 광운대, 국민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동양미래대, 명지대(제2캠퍼스), 삼육보건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숭실대, 한국외대, 한성대(15개 컨소시엄, 컨소시엄별 최대 3억원)
- **(서울-지방 공유협력 활성화)** 동양미래대, 서울과기대, 한성대(3개 컨소시엄, 컨소시엄별 최대 6억원)
- **(미래키움 교육지원 생태계 구축)** 건국대, 삼육보건대, 숭의여대(3개 컨소시엄, 컨소시엄별 최대 15억원)

<선정 대학의 주요 강점>

- 삼육보건대학교: 전문성과 인적 자원 기반 전략, 명확한 역할 분배 및 환류 계획으로 서울 동북부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창의적 솔루션 제시
- 동양미래대학교: 지역 중점사업 및 환경 분석 기반의 드론 분야에서 지방과 공유·협력 설정 과정 우수
- 건국대학교: 늘봄교사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사업 보완 및 확산 계획

4 글로벌 대학 경쟁력 강화

- **(서울 평생교육 고도화)** 광운대, 국민대, 동국대, 동덕여대, 명지전문대, 서울교대, 서울시립대, 세종대, 한성대, 한양여대(10개 대학, 대학별 최대 4억원)
- **(고숙련 전문기술 인력양성)** 동양미래대, 명지전문대, 인덕대, 한양여대(4개 전문대학, 대학별 최대 8억원)

<선정 대학의 주요 강점>

- 동국대학교: 마음챙김, 인문학 등 타 대학과 차별화되는 평생교육 과제 설계, 목표 달성 가능한 합리적인 자율성과지표 설정
- 한양여자대학교: 대학 특성화 방향에 맞춰 니트패션 DX 융합 고숙련 전문 기술인력 양성 및 자치구 및 지역 상공회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계획 수립

3 방송대에의 시사점

현재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핵심 형태인 지자체 기반의 재정지원사업 참여시 방송대가 참여 가능한 사업 추진내용 탐색 필요

- 기존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의 규모를 이양하여, '지역 정주형 인재양성, 지·산·학·연 협력시스템 구축, 대학-지역협력을 통한 지역 현안 해결, 직업·평생교육 혁신'을 위한 사업 추진

새정부(국민주권정부)의 라이즈(RISE) 체계 전면 재설계 방안(RISE 2.0)에 대한 추가 고려

- 중앙정부 개입 없이 대학과 지역이 공동 기획, 책임지는 교육 거버넌스 확장 모델로 재설계하여 추진. 이에 지자체와 대학이 통합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기획부터 예산 집행까지 일괄 책임지는 통합형 캠퍼스(공동통합대학)를 구축하고, 지방국립대의 역할을 지역을 넘어 국가책임대학으로 재설정하도록 사업 재설계 검토

- RISE 등을 기반으로 지방 거점국립대 중심의 대학개혁방안이 설계, 추진되는 상황에서 국내 유일의 원격국립대학인 방송대는 국민 평생교육의 책임대학으로서 타 지방대학과 연계하여 초지역, 초국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수행의 방안 고민 필요
- 방송대 특징 및 강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예. 서울-지방 공유·협력 활성화, 지역 현안 문제 해결, 지역평생교육고도화 등)에 관해 검토 필요

*〈자료출처〉 서울RISE 프로젝트별 선정 결과 안내(2025.05.20.). 서울RISE센터(https://seoulrise.or.kr/) 공지사항/ 서울경제 소식. 서울시, 'RISE' 사업 수행 35개 대학 최종 선정. 지역·대학 동반 성장 발판 마련. 서울특별시(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66972)

사이버대학의 외국인 학생 대상 교육 운영

★ 학령기 학생 급감 등에 따른 학습자 확보 방안으로 많은 대학에서 외국인 학생 유치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격대학에서도 대학의 외연 확보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외국인 학생 대상의 교육 시행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는 몇몇 사이버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 대상의 교육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해당 사례들이 현재 우리 대학이 추구하는 외국인 학생 유치 관련의 주요 과업에 어떤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경희사이버대 글로벌 자율학부 운영

- **(추진 배경) 제2주기 원격대학 교육혁신지원사업**으로서 **'이주배경 성인학습자의 사회적 성공을 위한 글로벌 교육모델 구축'** 사업('24.~'26) 수행 중
- **(추진 내용) 글로벌 자율학부 신설 및 운영, 이주 배경 성인학습자 대상 교육과정 개발, 학생 지원 비교과 프로그램 및 통합 지원체제 구축, 이주배경 관련 기관 협력 확대**
- (추진 방식 및 전략) 1+3 교육체계 구축
  - 1학년 35학점 이상 이수 후, 2학년에 35개 학과(부)에서 주전공을 선택하여 2~4학년 해당 학과(부)에서 직무역량 강화의 교육과정 이수

- **(교육과정 운영) 한국어 역량 강화 기반의 소단위 전공(마이크로전공) 결합 운영**, 외국인 학습자의 학업 지속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방식 및 서비스 적용
  - 한국어 어학 능력 강화, 소단위 전공 제공, 유연한 학사제도 운영(성취기반평가, 비실시간 시험 등), 한국어센터 협업(교과-비교과 연계, 비교과 학점 인정), 다국어지원, 직업-진로교육 강화, 블렌디드러닝 도입

<경희사이버대 글로벌 자율학부 1학기 교육과정 개설표>

구분		1학기	2학기	학점
1학년	학부	전공 탐색과 학습전략	자기 탐색과 세계시민	3
		대학한국어	대학한국어2	3
		한국사회와 대학이해	다양성 이해와 글로벌 리더십	3
		취업·창업을 위한 진로 설계	금융과 경제 이해	3
		K-의료(양방,한방)의 이해	미래직업과 AI: 윤리적 도전과 기회	3
	권장교양	왜 대학생에게 글쓰기가 중요할까		3
		여행을 통한 인간 삶의 가치증진		3
		인공지능과 우리의 삶		3

- 2025학년도 1학기 글로벌자율학부 경희나노디그리 과정

구분	과정명	개설 학부(과)	과목명
1	한국어 의사소통 전문가 과정	글로벌자율학부	대학한국어1
			한국사회와 대학이해
			대학한국어2
			다양성 이해와 글로벌 리더십
2	한국 직업 및 진로이해과정	글로벌자율학부	K-의료(양방, 한방)의 이해
			취업·창업을 위한 진로 설계
			금융과 경제 이해
			미래직업과 AI: 윤리적 도전과 기회

2 한양사이버대/서울사이버대 복수학위과정

▢ 한양사이버대-페루국립공과대 복수학위과정

- **(개요) 페루국립공과대학교(UNI) 시스템산업공학과(FIIS) 학생을 위한 맞춤형 복수학위과정을 개설**하여 2024년 7월부터 34명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 **(추진 경과)** 2021년 페루국립공과대학교 복수학위 등 추진 협약 체결→ 2023년 19명 UNI 학생 대상 한국어 과정 시범운영→ 2023년 34명 UNI 학생 대상 한국어과정 학점교류 시행
- **(추진 내용)** 페루 국립공과대학교 학생 맞춤형 과목으로 구성
  - **AI 전공과 지능형 자동차 전공**을 선택하여 수강
  - 두 전공 모두 **한국에서 2주간 진행되는 실습 프로젝트 수행 및 견학 프로그램 참여**(한국 실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학생 별도 등록금 납부*)

* 페루국립공과대학교는 국립대로 전액 무료 교육과정으로 운영

■ 서울사이버대-베트남국립우정통신대학교/캘리포니아주립대 샌버나디노 복수학위과정

베트남국립우정통신대학교 복수학위과정

- **(개요)** 2024년 8월 **베트남국립우정통신대학교(Posts and Telecommunications Institute of Technology, PTIT)와 복수학위과정** 운영 확정
- **(추진 내용)** 현재는 **국내 유입된 베트남 근로자 대상**으로 복수학위과정 운영
  - **컴퓨터공학과와 경영학과 선택하여 수강**
  - **국내 베트남 근로자가 PTIT에서 2년,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2년을 공부**하여 양교 학위 취득

캘리포니아주립대 샌버나디노 복수학위과정

- **(개요)**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CSU) 샌버나디노 대학과 2+2 복수학위과정 운영
- **(추진 내용)** 서울사이버대 2년 과정을 모두 이수한 2학년 2학기 이상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샌버나디노 주립대학에서 온라인으로 졸업학점 이수 후 양쪽 대학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동시에 두 학위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 복수학위 취득을 위해 서울사이버대 80학점 이상, 캘립포니아주립대 60학점 이상 취득
  - 경영대학 전공 분야 및 교양과정으로 교육과정 구성

3 방송대에의 시사점

- **우리 대학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 대상 교육프로그램의 성공적 안착 및 확산을 위해 사이버대 운영 사례의 주요 특징적 요소 파악 및 적용 가능성 검토**
  - 참여 외국인 학생의 대상 및 규모, 교육 수요의 적확한 파악, 외국인 학생의 선호 및 참여 가능 학과와 전공,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형식의 복수학위과정 운영 방안, 온라인과정 외 현장 기반 오프라인 프로그램 결합 방안, 외국인 학생 학업 지원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 및 지원 서비스 시행 방안 등

<참고: 방송대 외국인 학생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 현황>

몽골과학기술대학교(MUST)와 복수학위과정 운영
- 2025년 1월 복수학위 협약 체결. 2학년까지 자국 대학에서 수학한 후 3~4학년을 온라인으로 방송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양교 학위 동시 취득(2+2)할 수 있도록 운영 계획

글로벌 자유전공학부 운영
- 외국인 학생이 1학년에 한국어, 한국문화, 기초교양 등을 이수한 후 2학년부터 방송대 전공을 선택하여 이수하거나, 국내 타 대학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운영 계획. 현재 전북대 등 지방 국립대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 준비 중이며 2026년 하반기 운영 예정

* 〈자료출처〉 경희사이버대. 2주기 원격대학 교육혁신지원사업 1차년도 최종결과보고서/1차년도 성과공유회 발표자료./ 서울사이버대 홈페이지(https://www.iscu.ac.kr/07_globaldegree/01_main.asp). 해외 복수학위 프로그램/ 한양사이버대, 페루국립공과대와 복수학위과정 개설. 한국일보https://v.daum.net/v/20240703113018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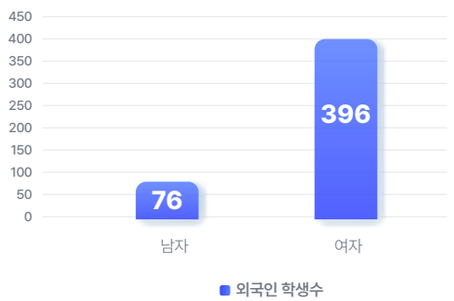
방송대 외국인 학생 교육참여 현황과 대응 방안

★ 방송대에는 어떤 외국인 학생들이 참여하고, 어떻게 학업 과정을 이어 나가고 있을까요? 방송대에서 학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어떤 어려움과 장애가 있을까요?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본 글에서는 외국인 학생 현황과 **외국인 학생 참여에 따른 현안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방송대가 추진해야 할 외국인 학생의 유치와 지속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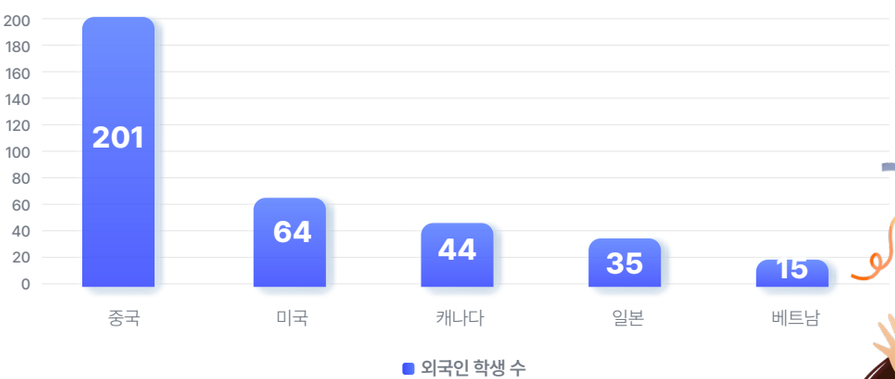
-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된 「외국인 학생의 유치방안을 위한 연구(2024, 과제책임자: 송선혜 일반연구위원)」에서는 방송대 외국인 학생의 교육참여 현황을 조사하고 외국인 학생들이 경험한 방송대 참여의 어려움을 분석

1 외국인 학생 교육참여 현황 및 주요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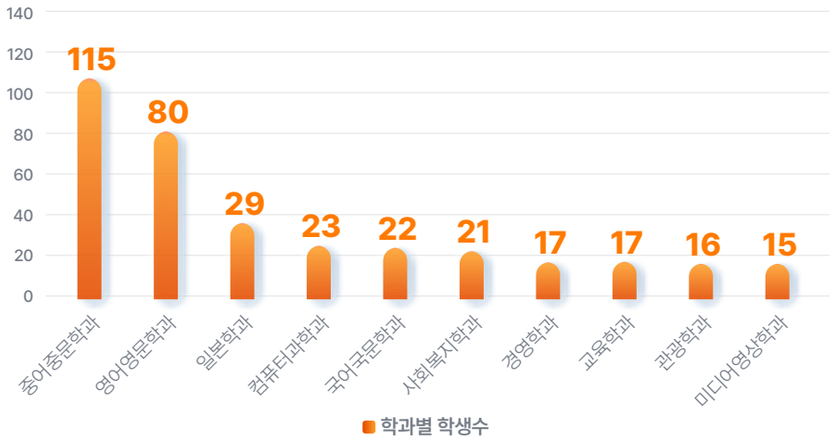
- **방송대에 등록한 외국인 학생 수는 '22년 482명, '23년 419명, '24년 427명**으로 최근 3년간 일정 수준의 등록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학생 비율은 82.9%로 성별 차이가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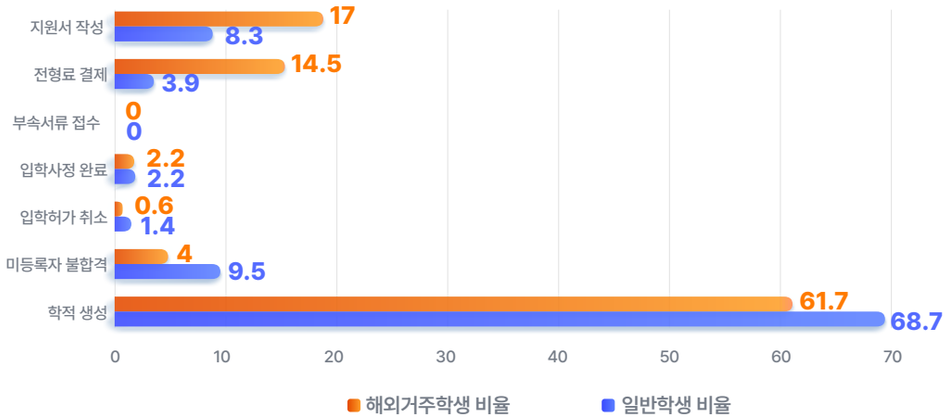
- 2024년 외국인 학생의 출신 국가 상위 5개국은 중국, 미국, 캐나다, 일본, 베트남(전체 외국인 학생의 84.1%)이며, 중국 국적 학생 비율이 압도적(47.1%)



- 2024년 외국인 학생은 중어중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일본학과, 컴퓨터과학과, 국어국문학과 순으로 소속되어 있음(인문사회계열 학생 비율이 전체의 85%)



- 해외거주 학생은 입학과정 단계에서 지원서 작성과 전형료 결제 단계에서 멈추는 비율(31.5%)이 일반 학생보다 높음



- 중도탈락률은 '21년 15.7%에서 '23년 18.4%까지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입학은 했으나 학업 지속이 어려운 구조'임을 보임

- 이상의 외국인 학생 현황은 **성별·국적·전공 등에서의 편중을 보여** 향후 방송대 외국인 학생 유치 전략의 다양화 필요성을 제기

- 또한 **2024년도 2학기 해외 거주 학생 입학 시 다음과 같은 현안 발생**
  - 국가별 행정력 차이로 해외 거주 증빙 및 학력 증명 서류 증빙에 많은 시간 소요
  - 등록시 신용카드 결제 불가, 등록금 반환시 반환 통로 미확보
  - 온라인 콘텐츠 수강 시 버퍼링 및 다운로드에의 어려움 발생

2 방송대 외국인 학생 유치 및 지속 방안

- 이상의 외국인 학생 교육참여 현황 및 외국인 학생 등록 및 수강 시의 현안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송대의 외국인 학생 유치 및 지속 방안 제시

- 외국인 학생 유치의 다양화 전략
  - 단기·비학위 과정 운영: 한국어·한국문화 연계 프로그램 중심의 트랙 신설
  - 국가별 맞춤형 마케팅: 언어권·문화권별 타겟 유치 전략 수립
  - 해외 협력기관과 공동모집 또는 학점교류 확대

- 제도의 편의성 확보
  - 입학 서류 간소화: 재외국민 등록증 외에도 다양한 해외 거주 증빙을 허용
  - 전형료 결제 수단 다양화: 해외 카드, 간편결제 등 글로벌 결제 수단 도입
  - 등록금 반환 절차 명확화: 해외 계좌 환불 절차 및 환율 공지

- 맞춤형 학습환경 개선
  - 자막 언어 다양화: 현재 일부 과목만 제공 중인 자막을 전체 강의로 확대
  - LMS 업그레이드: 접속 국가별 스트리밍 품질 개선 및 클라우드 서버 분산
  - 튜터링 및 멘토링 시스템 강화: 해외 학생 구분 기능 추가, 상담 창구 일원화

* 〈자료 출처〉 송선혜, 이성민, 이은경, 이창봉, 채창균(2024). 외국인 학생의 유치방안을 위한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래원격교육연구원(정책과제 2024-13)